

세계의 危機

과학과 의학 기술이 날로 발전하여 앞으로는 참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만 같다. 달나라, 火星에 위성을 쏘아 올려서 신비의 세계를 탐색하고, 인체의 극소단위 세포를 재생하여 생명의 신비마저 파헤칠 기세이다. 이런 눈부신 인간의 지혜 발달을 끝까지 지켜볼 수 있으리만큼 오래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도 해 본다.

그런데 우리의 세계는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에 못지 않게 짙은 어두운 면을 보게 된다. 그것은 가난이라는 두 글자가 나타내는 인간의 현실이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 가난의 무서운 힘에 시달린 우리들은 우선 먹고 보자는 마음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금할 길이 없다. 그래서 차관을 얻어 오고 원조를 받고 무역을 하여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을 풍족하게 하는데 안간힘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먹기는 먹되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이다. 요즘 KBS 고전 시리즈에서 <홍부전>이 계속 방영되고 있다. 아는 이야기지만 훌륭한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서 한국적인 가난의 실체를 똑똑히 볼 수가 있다. 남의 매를 대신 맞기로 약속하고 다섯양의 선금으로써 온 식구가 우선 배불리 먹는 광경은 희극인지 비극인지 알 수 없다. 홍부는 좋다고 기뻐하고 아내를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울음을 터뜨리니 말이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나라는 무던히 외국 원조 차관을 받아 왔었다. 1969년 전 세계 후진국가에 떨어진 원조액수는 135억불인데 그

들의 일부가 한국에 떨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 원조액의 6분지 5가 전부 원조를 주는 나라의 물품을 구입한다는 조건, 그것도 10%나 비싼 값을 치루는 울며 겨자 먹기식의 원조였다. 식량원조도 역시 잉여 농산물의 방식으로 취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주는 나라의 당면한 문제 해결과 직결된 것이기에 순수한 인도주의적인 용기에서만 평가될 수 없는 것이다. 섬유 문제도 한동안 여권이 비등했는데 그것도 닉슨 행정부가 남부 여러 지역과의 정치적 타협을 이루기 위해서 보호 정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테면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벌어서 유리한 조건으로 원조는 수출망정 후진 국가들이 공업화가 되어 생산의 경쟁자로 등장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심리로 해석된다.

요즘 WCC에서 보내온 문서를 훑어 보고 이러한 강자가 약자의 등쳐먹기식의 원시적 국제경제 구조가 아직 우리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가 있게 되었다.

지난 20년간 후진국가들이 무역 흑자에서 이득을 본 것이 3분지 1에서부터 6분지 1로 떨어지고 앞으로 더 떨어질 기세라고 한다. 그러니 가진 나라는 더 부자가 되고 원료 생산 국가는 더 가난하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우리의 세계는 그렇게 밝은 것으로만 가득 차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런 현실을 볼 때 더욱 실감하게 된다. 먹어야 사는 것은 틀림없지만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경제적 차원이라기 보다 정신적인 차원에서 찾아내야만 할 것 같다. 정말 흥부의 정신 상태에서 서 바르게 먹는 자세를 찾을 수 있을까?